

- 과목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 이 름 :
- 아이디 :
- 과제명 : 한국어 관용표현과 속담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한국 문화와 관련한 교수법에 대해서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누워서 떡 먹기

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3. 식은 죽 먹기

4. 누워서 침 빨기

III. 결론

I. 서론

1. 누워서 떡 먹기

-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하는 말

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

3. 식은 죽 먹기

-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4. 누워서 침 빨기

-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떡과 관련된 속담을 고른 이유는 떡이 한국인이 많은 애착을 갖고 종류 또한 다양해서 한국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음식에 관련된 문화를 통해서 속담을 배우고 떡과 관련된 많은 속담들을 통해 우리 문화와 함께 속담 및 관용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떡과 관련된 속담을 선정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죽 또한 '본죽'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본죽'은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죽과 관련된 관용구를 선정했다.

누워서 침 빨기의 경우 위에서 누워서 떡먹기를 통해 같은 표현인 '누워서'를 통해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관용구를 하나 넣어봤다.

II. 본론

1. 누워서 떡 먹기

-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하는 말

일단 속담이나 관용어구의 경우 우리가 말 그대로 뜻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의 문장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같은 속담들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가랑잎과 솔잎이라는 단어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바람 잘 날이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에 비해 ‘누워서 떡먹기’ 는 문장 그대로 직관적으로 누워서 떡을 먹는 상황을 떠올림으로써 굉장히 편하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위에 ‘누워서 떡먹기’처럼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2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왜 어른이 시키는대로 할까? 두 번째는 떡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내용일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장유유서’ 사상을 가르치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권이라는 문화를 가르치면 좋을거 같다. 그리고 또한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를 알게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존댓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떡이 생기는 일은 왜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나라의 음식 문화를 가르치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떡이라는 것의 어원이 ‘떡’이라는 소리도 있고 예로부터 궁중에서는 사치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귀한 선물로 주고 받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떡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 더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식은 죽 먹기

-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식은 죽 먹기’ 관용구도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자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본죽’ 브랜드를 통해 음식문화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재미있을 거 같다.

4. 누워서 침 뱉기

-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누워서 침 뱉기’의 경우 위에서 ‘누워서 떡먹기’와 함께 누워서 하는 행동들끼리 묶어서 배우

면 재미있을거같다. ‘누워있으면 소된다’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누워있는게 단지 편한상태라서 좋은 상황인것만 있는게 아니라 게으름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남을 해치려 하면 자신에게 되려 피해가 온다는 좋은 교훈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거 같다.

III. 결론

결국 속담이나 관용구를 배운다는건 어느정도 한국어 실력이 있는 학습자를 상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 안에서 언어를 습득하면 더 재밋고 한국을 이해하면서 언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1. 네이버 - 국어사전